

강론 ...

천원짜리 봉헌금



염태성 신부
(송천동 성당 보좌)

찬미 예수님!
우리는 오늘 복음말씀을 통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렘톤 두 닢, 렘톤은 신약시대에서 가장 작은 화폐단위였습니다. 복음에서 렘톤 두

닢을 콰드란스 한 닢으로 계산했는데, 이 콰드란스에 64배를 곱해야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요즘 기준으로 7만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렘톤 두 닢은 대략 천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과부가 봉헌한 천원,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이 과부의 봉헌금을 극찬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된 봉헌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으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하심에 맡기는 동시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언급된 과부는 단순히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봉헌의 의무를 지킨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하느님께 쓰고 남은 여분을 바치지 않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먼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봉헌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렘톤 두 닢, 생활비 전체인 천원짜리 한 장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남겨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이 여인은 자기 소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마태 22,37 참조).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봉헌이 있는지도 벌써 이천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 오면서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서는 천원짜리만 좋아신다'는 괴상한 논리로 바뀌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천원짜리가 수북한 봉헌바구니는 그러한 논리가 이미 확신의 차원에 도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은 또 아닌지...

우리는 봉헌 때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2천년 전에 한번 칭찬받았던 렘톤 두 닢(천원)의 형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문명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madadpe

한병기(프란치스코)

성 대 알베르토(1206-1280)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교회가 낳은 탁월한 성인중의 한 사람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6-1274)의 스승이 되는 그는 독일 도나우 강변의 라우인겐에서 태어났다. 그는 삭소니의 복자 요단의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복자 요단의 영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에 들어간다. 그는 파도바와 파리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당시에 유명하던 철학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는 콜로니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선생으로서 유명해지는데, 자신의 재능을 보다 더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로 바치기 위하여 현직에서 은퇴하기에 이른다. 그는 레겐스부르크의 주교로 서품 되어 백성들의 화목과 도시들간의 화합을 이루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깨우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방대한 지식을 가진 박학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히 인간적 지혜와 신적인 믿음을 잘 조화시킨 한 사람의 인간, 학자, 성인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부피에 있어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도 백과사전과 같았는데, 성서와 신학적 작품과 설교들뿐만 아니라, 논리학에 관한 논문들, 수학, 윤리, 생리과학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의 관심은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인간과 동물의 생리학, 지리학, 지질학, 그리고 식물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우주적 교사는 자신의 활동범위와 인간감각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확실성과 인간이성과 그 자발적인 인식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했다. 그는 언제나 성서로부터의 언급을 그친 적이 없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인간지혜나 인간영성, 그리고 신적인 믿음의 원천과 근본은 항상 성서였다.

그는 쾰른(폴란드에서라고도 함)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후에 교회는 그를 '교회의 박사'와 '과학자들의 주보'로 선포하였다. 다음은 그가 쓴 '루카복음 주해'인데, 그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는 성사적 말씀을, 성서에 근거를 두면서 묵상하고 전해준다.

"첫째로는 이 성사를 집행하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이 성사가 주님께 대한 기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성체는 현세에서 죄 사함을 얻고 은총의 충만에 이르는데 비할 바 없이 유익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께 이 몸을 바칩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께 흠 없는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며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사보다 더 즐거운 일을 할 수는 없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것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성사는 사랑과 유대의 원천이고 가장 위대한 생명의 표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는 이유는 하느님의 축복 받은 성인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행복을 통교해 주시는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기도

북한 함경도에서 와서 우 리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는 고2를 못 마치고 자퇴하고 말았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햄버거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해서 나를 놀라게 했었다. 왜냐하면 북에서 오전수업만 하고 끝나면 바닷가에 나가 동무들이랑 콩대 볶아먹고 놀던 일이 가장 다시 해보고 싶은 그리운 추억이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역시 콩대보다는 햄버거가 더 강렬한 맛이 있겠지...

교회에서 사귄 여고생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수업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곤 해서 야단도 맞았지만 그 아이는 능실능실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죽음을 넘어온 아이라고 볼 수 없게 느물거리고 또 노는데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논술수업시간에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 때문에 놀란 일도 있다. 남북한 통일 문제를 다루던 날, 그 아이는 통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 논란은 딱 끊



고,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서 그 나라와 합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될 것인데, 이왕이면 푸에르토리코나 괌처럼 우리가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논리를 치밀하게 폈다.

북거일이라는 소설가가 하루빨리 우리가 영어를 국어로 채택해서 쓰지 않으면 얼마 못가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이래저래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른 아침시간에 서신동에서 학교까지 천변길로 차를 타고 오면서 차량 10대중에 9대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내쪽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폭력이 악이 무질서가 본래의 인간세계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늘하며 지낸다.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정인섭(안드레아)

입당송 시편 88(87),3

주님, 제 기도가 주님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1열왕 17,10-16

회답송 시편 146(145), 6ㄷ-7,8-9,9ㄴ-10 (◎ 1)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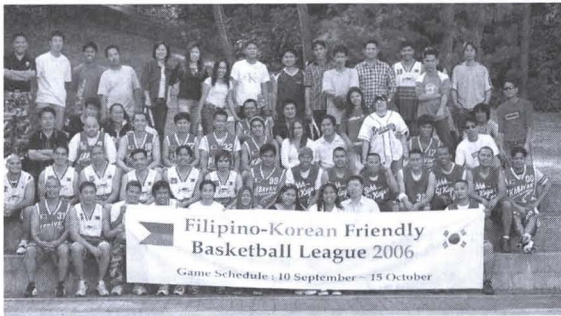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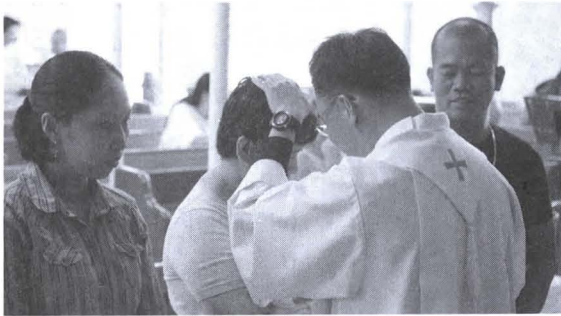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도다.

외국인 노동자 · 국제결혼 이주민 대상 형제적 나눔 통해 올바른 정착 도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 땅 설고 물 설은 타국 땅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우리, 곧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사목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이민의 새로운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교회에서 실질적인 형제적 만남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이병호 빈첸시오 주교)에서는 현대 사회의 인구 유동 관련 분야와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5월 첫째 주일 이민의 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일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사목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87만 여명으로, 그 증가추세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현 시대의 새로운 징표로 이민을 중요하게 다루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교구 사회사목국(이주사목전담=박동진 신부)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무주, 장수에서 정해진 주일에

외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상담, 구제지원(성 요셉 노동자의 집, 성 가정의 집)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은퇴 교장단 상담원 양성과 이주민 및 자녀 컴퓨터와 대안학교를 행정기관 및 기업과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민 가정방문 및 지역분당과 연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안전망을 구성, 어느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강을 위한 '성모클리닉' 운영과,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가게 '온가'에서는 기증품 접수 및 판매, 수익금을 이주민 기금으로 활용하고 25명의 필리핀인으로 결성된 '하느님의 종' 농구단이 현대자동차 가톨릭 사우회 후원으로 결성되어 일반 팀으로 출전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로마 15,7)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서 단순히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 뒤를 따라 걷는 것이고 자신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리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인류가 최종적으로 오직 하느님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뿐, 이민자들을 단순한 동정과 보호의 차원을 떠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써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온전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불편하고 외로운 인생들과 동료가 되어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먼 이국땅에서 온 이들이 같은 하늘을 바라볼 때 서럽고 고달픈 하늘이 아닌 진정 행복과 감사와 평화의 하늘이 되길 기원한다.

참조: 이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훈령), 그 외

사진 : 김영수기자, 취재 : 이원엽 기자

벼랑 끝에 선 인간이 부르는 하느님 자비의 노래- ‘엘리펀트 맨’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시편 23편)

19세기 영국 런던에 실존했던 무시무시한 기형인의 삶을 다룬 영화, <엘리펀트맨(The Elephant Man, 1980)>은 1890년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존 매릭이라는 실제인물의 삶을 통해 비록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인간에게 생명을 준 하느님에 대해 슬프고도 아름다운 감동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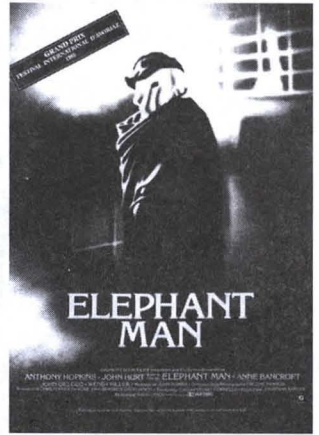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매릭(John Merrick: 존 허트 분)은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모양을 닮은 그의 기형적 모습 때문에 갖은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 서커스 단장이 그를 매릭 어머니가 임신 중에 코끼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소개하는 바람에 ‘엘리펀트맨’으로 불리게 된 매릭은 끔찍한 기형 때문에 늘 머리에 자루를 쓰고 다니지만 내면은 훌륭한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사람이라고는 그 몰골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우리에게 가두고, 때리고 사육하면서 서커스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희귀동물로 취급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던 그에게 유일하게 접근했던 의사는 말 못하는 그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를 서커스단에서 탈출시켜 병원 격리 병동에 숨겨 놓고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의사는 병원장에게 그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의사는 엘리펀트맨에게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장에게 보여주자고 간청한다. 그러자 엘리펀트맨이 처음으로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자 흥분한 의사는 성경의 시편 23편 첫 부분을 반복하게 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인터뷰를 준비시킨다. 그러나 병원장이 오자 엘리펀트맨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거의 기계적인 반복 음에 가까운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하자 실망한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와 엘리펀트맨을 어떻게 할지 조용히 상의하고 있을 때였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시편 23편의 낭송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첫 세절 뿐 아니라 마지막 부분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의사는 엘리펀트맨이 스스로 하느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또렷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시편의 뒷부분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윽고 두 사람은 다시 병실에 들어가게 되고, 충분히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엘리펀트맨으로부터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시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과 늘 어렵고 힘들고 매를 맞고 버릴질 때마다 스스로 기도하며 이 시편을 암송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도 걸 수도 없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 왜 시편 23편이 인간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례식에 인용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이 시편은 단순히 삶을 묵상하는 한 인간의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이거나 모든 환경이 좋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그를 버릴지라도 하느님의 크신 보살핌은 계속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크나 큰 자비에 대한 고백이요, 벼랑 끝에 서있는 인간이 절실하게 하느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인 것이다.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시편기도와 더불어 영화, <엘리펀트맨>을 권고하고 싶다. 성경의 시편과 영화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감동적인 만남을 이루는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보국장=서석희 신부)



본당 공동체 일치와 조화

‘숲정이’는 ‘본당탐방’ 코너를 신설, 매일 한차례씩 교구내 본당 한곳씩을 선정해 소개한다. 이 코너를 통해 본당의 발자취, 교세현황, 제단체 활동, 사목 방향 등 다양한 모습을 살펴봄에 이웃 본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 잘 준비된 공동체

토요일 오후, 주말의 여유로움이 흐르는 성당 마당에서 여섯 명의 청소년들이 농구경기를 하고 있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놀이문화가 부족한 지역이라 농구대를 설치한 뒤에 자주 와서 놀다가지요.” 김영수 주임신부의 말이다. 처음에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도 한걸음씩 성당에 가까이 접근하더니 이제는 성당 마당도 그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 가면 웬지 행복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갖춘 성당 마당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른거리는 모정이 한쪽에 있고 고즈넉이 자리한 성모상은 잃었던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가족 영화 상영, 어르신 효도 관광 등 지역 주민에게 열린 자리를 마련하고 성당 마당과 회합실도 지역 행사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 운치 있게 꾸며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방인 ‘야곱의 우물’도 성당 입구 쪽에 만들었다. 여러 가지 교회 홍보물도 눈에 띄게 가지런히 꽂혀 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소공동체 운동 전개

전주 용머리 성당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진하고 있는 공동체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1월 이 곳에 부임한 김영수신부는 ‘정체’를 보이고 있던 본당에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열정과 사랑으로 신자 하나하나를 끌어안는 사목자의 섬김의 자세는 신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공동체의 세포는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 새바람의 근원지는 소공동체이다. 본당 사목조직의 중심에 소공동체 협의회를 두었다. 사목 분과위원회는 본당의 안건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구역·반 봉사자 모임을 통해 신자들에게 본당의 현안을 알리면 이에 대해 구역·반 모임에서 토의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수렴하는 것이다. 생생한 신자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반모임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고 이 열기는 신자들이 본당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일이야말로 교회성장의 지름길임을 보여 준다.

◆ 영성의 삶은 신앙 성장의 열쇠

성당에 다닐 맛을 제공하는 용머리 성당은 사람들의 복적거림 속에서 활력이 넘친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펼치도록 늘 개방되어있는 공간에서 신앙의 실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필요하기에 영성 생활에 대한 배려는 각별하다. 현재 성경 읽기반이 6

지역사회에 활짝 열린 교회

개 운영되고 있으며 주임신부의 주일 강론과 말씀 영성, 묵상 시를 담은 '말씀 동산'은 신자들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 주고 있다. 매월 실시되고 있는 가족 성시간에는 전례시기별로 주제에 맞게 영성 특강을 실시하며 영성분과에서는 신자 재교육과 영성 신앙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막달레나 기도방'은 본당교우인 막달레나 할머니의 전 재산 기증으로 마련되었는데 스테인드글라스로 제작된 십자가며 은밀한 내부구조들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누구든 와서 쉬며 기도로 영적 에너지를 듬뿍 받아 갈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섬세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성당 내의 조명은 전례 분위기를 한층 돋워 토요일 청년 묵상 미사를 은혜롭게 이끌어 준다.

◆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

용머리 성당은 효자동 1가, 서완산동, 동완산동, 삼천동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9개 구역 32반에 신자 수 2512명의 공동체이다. 복합 주거지로서 대·소형아파트와 주택, 완산동 산동네를 포함하며 연령층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 목표이기에 공동체는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며 고민한다. 특히 선교 추진 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선교 전략회의를 거쳐 선교에 대해 공부하고 냉담자, 새신자 선교팀은 각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한다. 그 결과로 선교 책자와 기타 홍보물을 제작 하고 꾸준히 신자들에게 선교운동이 스며들도록 노력한다. 모든 신자 본명축일에 보내는 카드와 군대에 간 자녀들에게 성탄, 부활에 보내는 위문품들은 이들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해 주었다. 본당 주보 '용머리 까치'와 주일 강론이 들어있는 '말씀 동산', 쉬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신부님의 '사랑의 편지', 곳곳에 설치된 게시판과 홍보함 등은 용머리 공동체의 선교의 역동성을 찾아볼 수 있게 해준다.



◆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위해

늘 함께하는 용머리 공동체의 노력은 지난 9월, 본당의 날 18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성서의 세계 특별 전시회'를 통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이 행사는 개신교 목사와 불교 승려의 축사와 격려로 시작하여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다. 기존의 먹을거리 중심에서 벗어나 공연과 전시를 통해 주민들은 교회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본당 신자들은 이웃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려는 용머리 공동체의 노력이 맺은 결과이다. 이제 새로 개편된 10대 사목회는 본당 설립 20주년을 준비하게 된다. 공동체가 성인이 되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사목회장으로 불림을 받은 조세열(파비아노)형제는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다"며 현재 신축중인 교육관을 설립하는 일이 본당의 당면 과제라고 밝힌다.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제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 달려가는 용머리 본당은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의 빛을 밝히 운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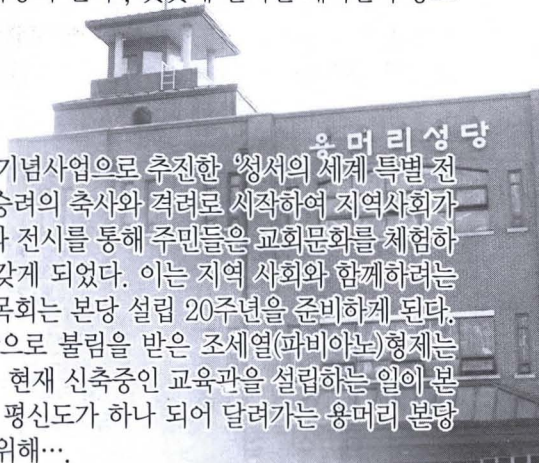


사진 : 김영수 기자 | 신현숙, 오안라 기자 공동취재



● 삼례 성당 위령의 날 합동미사 및 소풍

삼례 성당(주임=이재후 신부)은 지난 11월 2일(목)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양 꾸리아를 주축으로 제단을 쌓고 위령의 날 합동미사를 거행하였다.

미사 후에는 단풍과 낙엽이 된구는 무주 적상산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최경호 기자

● 교구합동 위령미사

지난 11월 2일(목) 치명자산에서 교구합동 위령미사가 이병호 주교의 집전으로 교구 내 사제와 신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성경말씀을 설명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가 끝난 후 성직자 모지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도를 바쳤다.

|홍보국 정례

● 소공동체 축제 및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파견미사



소공동체 축제 및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파견미사가 지난 10월 31일(화) 오전 10시에 삼천동 성당에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봉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사목국(국장=김광태 신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축제는 오리엔테이션과 찬미시간이 15분 동안 있었고 소공동체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소공동체 이렇게 하면된다’의 주제로 류수현신부(광주교구)의 제1, 제2 강의가 있었고 교구장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봉사자 파견 미사가 봉헌됐다. |서장경 기자

● 김제지구 성당 합동 위령 미사

지난 11월 2일 위령의 날에 김제지구 묘원합동미사가 거행되었다. 만경선교 성당(주임=백수현 신부) 요촌 성당(주임=박중신 신부) 신평 성당(주임=이동 신부)이 합동으로 김제순동 산 2번지 소재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330명의 형제자매님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영원한 안식을 빌었다. |홍보국 정례

● 순창 성당 어른신 효도잔치



순창 성당(주임=송호석)은 빈첸시오회(회장=원경애)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온 어른신 효도잔치를 지난 11월 5일(주일) 공식미사 후 본당의 어른신들 80여분을 모시고 벌였다. 점심식사와 다과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준비하여 전달하고 올 겨울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주시기를 빌었다. |홍보국 정례

● 재경사제양성후원회 성지순례

교구 성소국(국장=이원철 신부)은 지난 11월 6일(월) 재경사제양성후원회의 성지순례를 가졌다.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1/7~2/18(6주) 599만원
초·중생 : 1/2~1/29(4주) 40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스스로 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아외주차장 앞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각종 김장용 젓갈 산지직송

서해젓집

영업례(리디아)
위치 :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16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초남이 성지에서서의 미사로 시작하여 숲정이, 전동 성당, 서천교, 초록바위, 치명자산을 차례로 순례하면서 후원회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 하신 신앙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며 돌아가서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다. |홍보국 정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줄무덤 성지와 갈매목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는. 참봉사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인식 기재

● **오룡동 성당 세례식 및 아나바다 바자회**

오룡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은 지난 11월 5일(주일) 11명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또 아나바다 바자회도 열려 본당 공동체 가족 모두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치의 행사가 됐다.

아나바다 바자회는 본당 교우들이 물건을 내놓았고 남은 수익금은 본당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길용운 기재

● **쌍교동, 도통동 성당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인 지난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남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신부)과 도통동 성당(주임=김희태 신부) 교우 100여 명이 서남대 뒤편에 위치한 성당 묘역에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오랜만에 성당 묘역을 찾은 교우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과 연옥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기원하며 묘지 앞에서 기도와 연도를 바쳤다. |송향순 기재

● **필리핀 이주민 야외미사 및 친선 농구 경기**

필리핀 이주민 및 근로자 야외 미사와 친선농구경기가 지난 11월 6일(주일) 오후 2시부터 군산대 야외 농구장에서 70여명의 필리핀 이주민 및 근로자와 숲정이 성당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미사 후에는 숲정이A팀: 필리핀 미국 혼합팀, 숲정이B팀: 필리핀팀이 농구 경기를 하며 피부색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이미원 기재

● **삼천동 성당 레지오마리에 단원 성지순례**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 레지오마리에 단원 200여명은 지난 11월 4일(토) 배티성지(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순례에 나섰다. 순례자는 다섯 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성지에 도착하자 곧 이승용 마태오신부(성지담임)가 집전하는 11시 미사에 참여했다.

미사를 마친 순례자들은 성당에서부터 뒷산 정상부근까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예수 수난의 14처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했다.

이어 순교 6인 묘를 참배하고 성당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복원된 최신부의 옛 성당 터와 사제관을 참배한 후 돌아왔다. |서정경 기재

● **장계 성당 설립 52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제**

장계 성당(주임=엄기봉 신부)은 지난 10월 29일(주일) 쉬는 교우를 초청, 수확한 농산물로 제대를 꾸미고 본당 설립 52주년 및 추수감사 미사를 드렸다.

1부 기념미사, 2부 나눔의 잔치, 3부 놀이 한마당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특히 3부에서는 신자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농악놀이와 율놀이를 통해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유연태 기재

● **남원 가톨릭 인보 호스피스봉사센터 봉사센터 성지순례**

남원 가톨릭 인보 호스피스봉사센터(센터장=정진숙 수녀)는 지난 11월 4일(토) 봉사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지순례
 0집트/이스라엘/0티라아/바티칸
 출발: 2007년 1월 3일~13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063-288-6666

학교폭력예방 전문인교육
 기간 및 일시: 11월 18일(토), 25일(토) (2일간)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장소: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대회의실
 수강료: 100,000원정(1,2차)
 접수: www.79jkim.com 교육신청란
 문의: 275-0188~9(사무실), 011-673-6331(사무국장)

최고의 시설 / 최강의 강사진
양평 매일 기숙학원
 예비고 1,2,3 및 예비 중3 / 재수 종합반
 교무부장 박경민(요한)
 총무부장 조선희(소시모)
문의: 031-773-4700 / 02-3432-5447

줄포 성당 사무원 구함
 자격: 영세후 3년이상된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처: 줄포성당 사제관 (063-581-0242)
 제출기한: 11월 26일까지

성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5시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분
 장소: 서울 돈암동 본원
 문의: www.columbn.to / 016-709-930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원 피정
 주제: 한국교회사와 신앙생활
 일시: 11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덕진 성당
 신청 및 문의: 062)371-5823

패적인 입원실, 물리치료실
<의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김선규(리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일리앙스 웨딩홀옆)

김장배추 절여드립니다
 -11월 20일부터 주문 가능-
 진안김치공장
 주문처:
 011-678-2004 김가타리나



교구장 일정

- **한일 주교 교류 모임**
11월 14일(화)~16일(목) 한티 피정의 집
- **견진**
11월 17일(금) 오후 2시 군산 교도소
- **인보성체수도회 설립 50주년 기념미사**
11월 18일(토) 오전 11시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폰비벤자**
11월 13일(월) 오후 7시 센터
- **재무평의회**
11월 15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경좌 4차**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센터
회비 : 3만원
신청 및 문의 : 가정사목부 285-0041
fax : 285-0049
주제 : 노년기 이해와 치매관리
- **익산 하나회 미사**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 · 피정 · 연수

- **천호피정**
11월 14일(화) 오전 10시
- **해월리 피정의 집 조성 음식바자회 / 3일 호프(식사, 주류, 안주류)**
11월 15일(수)~17일(금) 오전 11시~오후 11시
장소 : 중화산동 한빛안과 사거리
레스토랑 '아! 대한민국'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청소년교육국

- **고3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피정**
11월 16일(수능시험일) 오전 10시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소양)
내용 : 특강, 기도, 수험생을 위한 미사
회비 : 2만원(점심 제공)
접수 : 청소년 교육국 285-0041
011-9123-0811
*행사 당일 버스운행(오전 9시 30분)
시청 민원실 앞 출발
- **제5기 교구 기자단 교육**
11월 18일(토)~19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전례봉사자 연수 2차**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윤호관

기타

- **교구 전례 꽃꽂이 연구회 회원모집**
지도교수 : 018-643-3115(최은경)
회장 : 011-657-5726(박해자)
- **천주교전주교구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복은행 가톨릭카드 발급**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천주교 전주교구 청소년교육국을 후원하는 인재육성형 신용카드입니다.
후원기금 내용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제외한 카드사용 금액 일시불 및 할부금액의 0.3%를 후원 기금 제공
-대상기간 : 2007년 1월말까지
-문의 : 청소년교육국장 010-6625-3613
www.joyunho.org
- **금상동 성당(구 소리개재) 1층 납골시설 분양개시 (그동안 2층시설만 분양 했음)**
사용요금 : 개인실(160~200만원)
부부실(300~380만원)
선착순 예약 접수
11월 23일~29일(주일 제외)
장소 : 가톨릭 센터
문의 : 286-0091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교회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나 단체를 시상하고자 하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분야 : 사랑봉사상, 생명환경상, 사회문화상 자격요건
① 2006년 당해 연도의 실적만 해당됨 (사랑봉사상)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분은 제외됨.
③ 당해 연도에 업적이 있었으나 선종하신 분도 가능함.
④ 본당은 단체에서 제외 됨.
⑤ 반드시 본당신부, 지도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사랑봉사상외는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가능)
문의 : 285-2935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구약성경 입문과정(2년)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 소유자(교과초월)
원서교부처 : 인터넷,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접수 : 11월 1일~2007년 1월 20일
문의 : 성바오로딸수도회 02-9440-819~824
www.paulinebible.or.kr
접수처 : 142-704 서울 강북구 미아9동103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초대합니다.

인보성체수도회 설립 50주년 전야제

일시 : 2006년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보성체수도회 본원

내용 : 기도무용과 작은 음악회

문의 : 063-232-4340

150년 '능다리 교우촌 영성 센터' 신축을 위한 바자회를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태인 성당 교우일동-

사무원 구함

중앙성당

자격 :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미혼·기혼 여성, 컴퓨터 워드 기능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세례증명서 1통, 각 자격증 사본 1통

제출처 : 277-1711 중앙성당 사무실

관리장 채용공고

진안성당

자격 : 영세 3년 이상된 자, 1종 대형버스 경력자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세례증명서

문의 : 063-433-2541

제4회 전주교구

테마 영상작품 공모전 기간 연장

지난 10월 20일자로 마감되었던 테마영상 공모전에 연장, 추가 모집합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나 앨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분당행사나 단체 영상도 접수합니다.)

공모주제 : 선교, 복음, 봉사

접수기간 : 2006. 9. 11~11. 20
(우편접수는 당일소인 유효)

작품접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j catholic.or.kr)

문의 : 285-0041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현금 (10/29~11/4)

가톨릭 약우회 300,000
한빛약품 최병철사장 50,000
미국 시카고 주등성당(u\$1,000) 934,976

11월 좋은 영화-엘리펀트 맨

일 시 :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25분
관람비 : 천원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면우
 F A X: 563-1782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연도와 연미사를 바칩시다.
 1.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신입: 총신도일 - 178세대 5,780만원
 총납입액 - 5,574만원 ※ 많은 신입 바랍니다.
 2. 예비신자교리: 매주일 전9시 오늘부터 시작
 3. 순교자 최여경(마티아) 순교제 밤모: 기도회 영배예식 - 오늘 후2시 출발
 4. 영도대회: 16일(목) 후7시 5. 전례봉사자교육: 19일(일) 후2시 옹호관
 6. 한국대학교 세도활동연구팀이 성인병 건강강좌: 다음주 미사 후
 7. 김진정갑판에: 가나리해경 별칭해경 재우치
 8. 금주모임: 성모회 - 공심미사 후 임마누엘회 - 15일(수) 후7시
 9. 금주모임: 애령회 - 공심미사 후
 10. 차주전례: 전례 - 순영찬 장우미 독서 - 서동환 이준 복사 - 김점동 한재근
 11. 감사헌금: 이원희, 김태경 전우정 각10만원, 오윤애 3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61,500원 ■ 교무금: 980,000원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현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병순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 (사편133,1)
 1. 금주 ① 고3수험생들을 위한 미사 ② 사목회 ③ 울프레아- 저녁
 2. 차주 ① 제대회, 구역장모임- 교중미사후
 ② 전례봉사자연수2차(전10:00) 옹호관
 3. 특별헌금: 최병순-10만, 김지순-3만 ※ 감사합니다.
 4. 견진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평일미사에 참여합니다.
 6. 금주: 해설- 최광식, 독서- 최병순, 김준화
 7. 차주: 해설- 조미정, 독서- 봉상술, 문명선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 일중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소 건규
 F A X: 581-1334

◎ 추수감사 미사 봉헌에 협조해주시 모든 분들을 감사
 ◎ 가톨릭 신축헌금과 본당개보수 헌금이 정성을 다합니다.
 1. 금주모임: 성모회(교중미사 후)
 2. 가정방문일정 ① 6-3만-15일(수), 주공1차->16일(목), 주공2차->17일(금)
 ② 7-1만->21일(화) ③ 대림방. 6-1만->22일(수)
 ④ 7-2만->23일(목) ⑤ 7-3만 해중-24일(금)
 3. 견진회 사목회 단합대회: 19일(주일)12시
 4. 피정안내: 부부예배프로그램 13일(일) 오전9-오후3시
 ※ 참가비: 5천원 사문실이나 성모병원봉사자에게 신청
 5. 공심미사: 금주-동승 오전6시 차주-후7시30분
 차주-독서 오전6시 마포 후7시30분
 6. 신축헌금인원: 218,668,000원 인공금: 152,405,270원 7. 금주총소: 1구역
 ■ 지난주 봉헌금: 1,776,750원 ■ 2차헌금: 143,000원 ■ 교무금: 3,395,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범 선배
 F A X: 544-5654 서목회장: 손영일

1. 금주모임: 울프레아 - 교중미사 후
 2. 차주모임: 애령회 - 교중미사 후
 3. 금주전례: 해설-박영덕, 독서-최상열, 김정애 봉헌-장병오 부부.
 4. 차주전례: 해설-반영복, 독서-김 용, 박영덕 봉헌-최상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54,600원 ■ 교무금: 200,000원
 ■ 교구신축헌금: 100,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봉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최필만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차주(11/19)는 "평신도주일"로 2차헌금 실시합니다.
 1. 봉부차주 판매: 11/11(토) ~ 11/12(일) 서울 청담동 신당
 2. 유아세례: 11월18일(토) 오후 3시30분 (대성당) 신청-사무실
 3. 2007년도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2006.11.~12.8 만3세~만5세(문의 532-5777)
 4. 금주모임: 재수프란치스코회 11월12일(주일) 미사 후, 주교회 11월18일(토)
 5. 금주전례: 해설-김봉선 독서-이계복, 유공순
 6. 차주전례: 해설-배상정 독서-이영성, 신명자
 7. 감사헌금: 박종홍(마티아) 20만원, 강연례(요안나) 5만원
 8. 성당총소: 셋별, 하늘의 문(11/18 토), 인자하신 동정녀(소성당)
 ■ 지난주 봉헌금: 1,214,600원 ■ 교무금: 1,554,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855,000원

신 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필순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찬주

◎ 교무금 및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바랍니다.
 1. 금주모임: 구역장, 공소장 모임-12일(주일) 공심미사 후
 2. 공소미사: 태인-15일(수), 옥단-16일(목) 후7시
 3. 예비신자 환영미사 및 입교예식: 19일(주일) 공심미사중
 4. 각 분과 및 단체는 200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1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5. 첫영성체 및 세례식: 18일(토) 후4시 ※ 첫 교백식 있습니다.
 6. 본당의 날 행사 및 추수감사 미사: 11월 26일(주일)
 7. 2차 헌금: 차주는 평신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993,510원 ■ 교무금: 2,190,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창선
 F A X: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김민권

1. 이번주 성서: 창세기 12장
 2. 성심회, 자모회: 오늘 교중미사 후
 3. 한교공소 미사: 오늘 후3시(본당출발 후2시 30분)
 4. 수험생을 위한 미사: 11월 15일(수) 후7시 30분
 5. 빈첸시오 봉사활동: 11월 19일(주일) 후2시
 6. 감사헌금: 이오영(요한) 50만 ※ 감사합니다.
 7. 차주는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 있습니다.
 8. 차주모임: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1,336,350원 ■ 교무금: 1,590,000원
 ■ 센터 신축헌금: 890,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석태

◎ 김태술(바오로)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태(대건안드레아)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미사후 이, 취임식
 ① 지난주는 평신도 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모임: 울프레아(총회)
 2. 차주모임: 연령회, 자모회
 3. 본당미사: 침례공소: 외풍, 차주-백자
 4. 공소미사: 백자(전8시)
 5. 사목회 각분과장 및 단체장님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3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6. 성당총소: 2구역 차주 - 3구역(원장까지) 해주시시오
 7.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지난주 봉헌 3,588,000원
 누계-57,860,000원 ※ 신축헌금 납입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14,950원 ■ 교무금: 1,266,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종선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자록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 우리본당은 ①공부하는 신자 ②감사하는 교우 ③기뻐하는 공동체
 1. 전신자 성경 공부: 신명기 10장 ~ 20장(성경을 꼭 가져 오세요)
 2. 가정주간: 16일(목)~19일(일) ※ 성시간 - 16일(목) 저녁미사 후
 3. 봉월공소미사: 18일(토) 후7시 30분
 4. 성지순례: 마르타회, 자모회(12일) 오늘 ※ 연풍 성지
 5. 감사헌금: 익명 - 300만, 7만, 5만, 2만, 유현숙 5만.
 6. 센터 신축헌금: 김영희-1만, 익명 - 30만
 7. 금주모임 ① 사목회 울프레아 - 교중미사 후
 ② 대건회, 엠마우회 - 15일(수)
 ③ 성모회 - 17일(금)
 8. 금주전례: 해설 - 박재원(파우스티노), 모든 전례봉사 - 장정구역
 ■ 지난주 봉헌금: 1,434,400원 ■ 교무금: 1,677,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영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최석기

1. 금주: 성모회(교중미사 후), 대건안드레아회(교중미사 후)
 2. 차주: 평신도주일(2차헌금), 모니카회(교중미사 후)
 ※ 매월 셋째주(다음주)는 사제양성 후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3. 순환차여행 봉사자: 금주-박희관(프란치스코), 차주-박영민(요 션)
 4. 금주전례: 해설-강단규 독서-유 정, 최미숙 봉헌-이만춘가족
 5. 차주전례: 해설-최석기 독서-김현길, 오전희 봉헌-유옥상가족
 6. 성당총소: 금구, 봉남구역
 ■ 지난주 봉헌금: 622,450원 ■ 교무금: 5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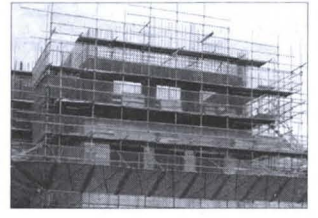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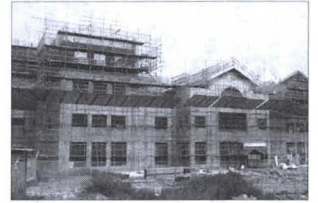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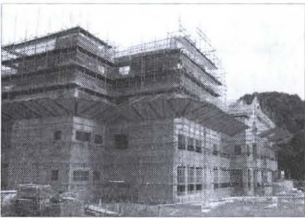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영진
 F A X: 581-0241 서목회장: 박경우

1. 사무원을 구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세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 26일까지, 제출처 - 사제관
 2. 추수감사제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산악회원 모집: 가입신청은 성우회장에게.
 4. 성모회: 오늘 공심미사 후
 5. 공소미사: 만석 - 오늘 오후 3시, 용반 - 19일(일) 오후 3시
 6. 병자봉성체: 16일(목) 오후 2시
 7. 성우회, 제대회: 19일(일) 공심미사 후
 8. 미사안내: 금주 - 최준석, 송영진, 차주 - 박수자, 김중선
 9. 금주전례: 해설 - 고재원, 독서 - 김중경, 박수자, 봉헌 - 조팔남 부부
 10. 차주전례: 해설 - 김영남, 독서 - 김현근, 한옥숙, 봉헌 - 신문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496,000원 ■ 교무금: 40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11월 4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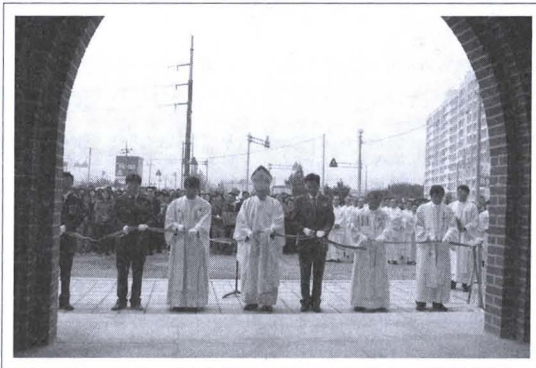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출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둔율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고창, 진안, 나바위, 고산, 인후동, 오수, 신태인, 여산, 소룡동, 신평
- 신축기금 배정액 60%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무주, 오룡동, 쌍교동, 나운2동, 금암동, 중앙, 서신동, 영등소리, 월명동, 복자, 노송동, 팔마, 소양, 신동, 숲정기, 함열, 덕진, 조촌동,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용안, 대야, 시기동, 수류, 우전, 영등동, 솔내, 우림, 봉동, 나운동, 요촌, 용진, 효자동, 송천동, 용머리.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7,888,052	52.59%
사제단	1,000,000	1,100,119	110.01%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80,420	38.69%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9,790,399	54.39%

팔봉 성당 새 성전 봉헌식



익산 팔봉 성당(주임=권순호)은 지난 11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익산시 팔봉동 323-8 현지에서 교구사제 37명과 교구민들과 본당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호 주교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2월 기공식을 거쳐 9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새 성전은 대지 1035평에 연건평 345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회합실과 사무실, 식당을 포함한 2층 성전과 기계실, 화장실 건물, 사제관 등 총 3동으로 구성돼 있다. 팔봉성당은 지난 1958년 창인동 성당 관할공소로 시작하여 94

년 어양동 관할 공소를 거쳐 97년 팔봉 성당으로 신설된 후 2000년 정식본당으로 승격하여 지금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 이병호 주교는 황무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팔봉성당 공동체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했고 권순호 주임신부는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운동을 여러 차례 바치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제를 믿고 따라준 교우들을 치하하고 이제 새 성전에서 자신의 내적성전을 잘 가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취재: 오안라, 김영수 기자